

현대삼호중, 업무용 차량 무공해차 전환 본격화

‘친환경 전기차’ 1t 화물트럭 3대 도입 기념행사 3월 조선업계 최초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선언 2030년까지 사내 운용 차량 100% 무공해차 교체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형관)이 전기차 도입 행사를 갖고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의 이행 작업을 본격화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6일 회사 본관에서 김형관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차량 도입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현장 지원에 활용될 1톤 화물트럭 3대로 모두 친환경 전기차이다. 영암군은 환경부의 전기차 구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을 지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월 조선업계 최초로 2030년까지 사내 운용 차량 100%를 전기

차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사업에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이 사내에서 운용하는 차량은 총 117대로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32%, 2028년까지 70%, 2030년까지 100% 무공해차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친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한 회사답게 무공해차 전환에도 조선업계를 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6일 회사 본관에서 김형관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K-EV100) 차량 도입 행사’ 개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환경부와 영암군의 지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사내 운용 차량 100%, 총 117대를 무공해차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기차그림 공모전 심사

아동·청소년 대상 총 293점 접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아동인권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확산을 위해 개최한 ‘환경을 실은 기차그림 공모전’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의 날이었던 지난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라남도 내 만 6세부터 15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 293점(초등부 259점, 중등부 34점)이 접수되었다.

공모전을 공동개최한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교육청, 함평군립미술관,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로 심사단 꾸려 작품성·창의성·인권지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총 16점(부문별 우수작품상 6점, 특별상 10점)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오는 8월 중 별도의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많은 참여가 이뤄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입상작을 비롯해 접수된 그림 중 일부는 광주전남 내 주요역에 전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시, 지역혁신 선도기업 모집 기술개발자금 최대 20억 지원

광주시는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지원,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부는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00개사를 선정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와 연계, 지난 2월 4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추가로 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6년간 20억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비롯해 정책자금 대출, 기술보증료 감면, 판로개척, 인재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분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주력산업 업종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1차 모집 요건과 다른 점은 매출액 400억원 미만이라는 매출상한액을 폐지하고, 협업 범위는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정자격을 확대했다.

김재환기자 이슬비기자

전남 공공심야약국 2곳 추가...나주·영암 1곳씩 선정

기존 4곳→6곳 증가·주민불편 해소 공공심야약국 오후 10시 이용 최대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2곳이 신규 참여함에 따라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인구 10

만명 이상 도심형 54곳과 인구 10만명 이하 비도심형 9곳을 선정했다. 전남에선 나주 목사골 한국약국, 영암 으뜸약국이 새로 지정받아 앞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해당 시, 전남도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목포 비타민약국, 순천 오가네약국에 이어 올해 1월 여수

백운약국, 광양 공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 지역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약지도를 받으므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해소를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전남도 공공심야약국은 5월 현재까지 일반약 판매 1만5193건, 처방약 조제 241건, 전화상담 791건의 이용 실적을 거뒀다.

시간대별로 가장 많은 오후 10시 시간대 이용자가 1만1733명으로, 11시 시간대(4584명)보다 3배 많았다. 이용자 연령별로는 20~40대가 1만896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구입 약품은 해열·진통제가 28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흡기계통 약품 1938건, 소화기계통 약품 1778건 순이었다.

김병성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이나 안전한 복약에 도움이 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5·18 상징 ‘옛 전남도청’ 복원, 내년 3월 첫삽...사업비도 증액

문체부 “사업비 255억원→466억원 증액”...10월 설계 마무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내년 3월 첫삽을 뜬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총 사업비를 466억원으로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복원 공사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8월에 발족한 추진단은 범시민복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신규 전시콘텐츠 비용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총사업비 조정 절차(2020년 9월~2022년 6월)를 거쳤다. 기재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총사업비를 기존 255억원에서 466억원으로 211억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등에 대한 복원 설계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현장 공사를 시작한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과 서사, 영상과 관계자 구술 등을 계속 확보하고 취득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후 내년 하반기에 전시 기획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옛 전남도청을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로서 민주·인권·평화 등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현장 교육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전체 철거될 뻔 했다. 하지만 5·18단체와 지역사회의 보존운동으로 별관 일부가 헐린 상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됐다.

2016년 9월부터 오월어머니들과 5·18 유공자,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보존·원형복원 운동이 전개됐고 2019년 9월 문체부 산하에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 설립돼 복원사업이 추진됐다.

김재환기자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발전설비용량 : 1.1 MW
2.사업개시예정일 : 2022. 07
3.사업운영기간 : 2022. 07 ~ 2047. 06(예정)
4.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2. 07. 19. ~ 2022. 07. 29.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E-mail : ilyang00@daum.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천사 태양광발전소	이정신	99.75	(1,246㎡/11,570㎡)
2 이야기 태양광발전소	정성용	99.75	(1,057㎡/11,570㎡)
3 린이2호 태양광발전소	박해란	99.75	(1,101㎡/11,570㎡)
4 봉황 태양광발전소	김부열	99.75	(972㎡/11,570㎡)
5 다해1호 태양광발전소	송수라	99.75	(905㎡/11,570㎡)
6 선 태양광발전소	문지선	99.75	(948㎡/11,570㎡)
7 민희 태양광발전소	김민희	99.75	(1,211㎡/11,570㎡)
8 주영광 태양광발전소	백송범	99.75	(956㎡/11,570㎡)
9 회당 태양광발전소	정미숙	99.75	(980㎡/11,570㎡)
10 봉향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최주경	99.75	(1,017㎡/11,570㎡)
11 우원2호 태양광발전소	정방수	99.75	(1,177㎡/11,570㎡)

전남 나주시 봉황면 황동리 891,892,1-4,1-2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에서 제안한 슬로리듬입니다.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범인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